

지역 소식통

부안예술회관, 코믹 뮤지컬

'넌센스' 24일 공연한다

부안군은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뮤지컬 '넌센스(Nonsense)'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미국 극작가 덴 고건이 대본과 음악을 직접 만든 작품으로 1985년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Cherry Lane Theatre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인기 작품이다.

5명의 배우가 모두 수녀로 등장하는 독특한 설정과 유쾌한 코미디, 재치 있는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연은 초등생 이상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5000원이다.

좌석예매는 오는 16일부터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580-3930)로 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4·6일 청명 · 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동

정읍시가 청명 · 한식 기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청명 · 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 시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등 공무원 118여 명을 투입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일 집중 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 순찰 위험 요인 사전 차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대) 41명 등 총 115명의 전문 인력을 운영하며 진화대의 경우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9시까지 근무를 확대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권역별 진화조를 편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차 헬기 3대를 인근 지역에 배치해 공중 진화 능력도 강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추진단 발대식 · 주민 설명회...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취지 · 계획 공유 등

정읍시가 2일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과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정책 목표를 비롯해 마을 협동조합 구성 방식, 주민 참여 절차, 사업 추진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농지, 유휴 부지, 저수지 주변 공간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절차와 운영 방식이 상세히 소개돼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관내 17개 마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실제 참여 마을을 단계적으로 선정해 탄탄한 사업



정읍시가 2일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행정, 전문가, 중간 지

원 조직, 유관 기관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구축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시티투어버스'로 주요 관광지를 한번에 둘러본다

4일부터 본격 운행... 오전 10시 고창 임시터미널 출발~ 오후 5시경 터미널 도착

고창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 버스'를 오는 4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고창에 더 오래 머물며 즐기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창의 풍부한 역사·생태·세계유산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시티투어는 최근 여행 트렌드인 치유관광을 핵심 콘셉트로 잡았다. 고창읍성과 황윤석도서관, 상하농원 등 고창을 대표하는 치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은 계절별 축제와 연계한 '시즌 특별코스'도 선보인다.

청보리밭 축제와 벚꽃 시즌 등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 축제와 주요 거

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오전 10시 고창 임시터미널을 출발, 주요 명소를 거쳐 오후 5시경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특히 전일장에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객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여행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티투어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불가하다. 일자별로 운행 코스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선을 확인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부 양곡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 실시

9~20일까지 조사 진행

정읍시가 정부 관리 양곡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모든 보관 창고와 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재고조사는 9월 31일 정오를 기

준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보관 창고에 있는 정부 양곡을 비롯해 가공 공장 재고 등 지역 내 모든 정부 관리 양곡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실물 재고와 장부상 재고 일치 여부, 양곡 품위·보관 상태, 창고 시설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재고량 부족, 품질 저하, 중해 발생 등 부정 또는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봉인 조치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읍시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물협회, 보관 창고주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읍·면·동별로 2인 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펼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약 이행률 90.62%

2026년 상반기 매니페스토 특강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 개최

고창군이 지난 1일 민선8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공약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매니페스토 특강과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먼저, 매니페스토 특강에서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고창 매니페스토 Report 2026'을 주제로 민선8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무원과 평가단의 역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공약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평가회의에서는 80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실무부서와 평가단이 함께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제출된 평가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끝에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 상



황을 전반적으로 '우수'로 평가·의결했다.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이중 21개 사업은 완료, 44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되어 총 65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2026년 3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90.62%로 전년도 동월(80%) 대비 10.62% 상승해 공약 추진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감염병 선제 대응 나선다

'보건소 통합방역 발대식' 개최

고창군이 2일 '보건소 통합방역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기능반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창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 모기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방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창군은 4월부터 방역기능반 5개 반을 운영해 해충 서식 취약지역과 공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정기 점검을 병행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동절기·해빙기 유충구제 활동을 추진하며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 시기에는 방역 범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 중심의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연막소독 방식에서 빗이나 연무소독을 도입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방역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효과를 높여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식품 가공업체 판로 지원 '성과'

뽕의도리, 4일간 매출 2500만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공제품의 홍보 및 유통망 다변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의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업체인 '뽕의도리(대표 이철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수원 메가마트에 참가해 인기 제품인 편육과 신제품인 감자탕을 선보여 현장 판매 및 홍보를 통해 총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규모 가공업체의 경쟁력과 시장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